

의한 육지처분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」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며, 일본 통산성은 이를 발판으로해서 내년부터 세부설계를 시작하여 87년경에는 시설을 완성시켜 저장을 시작할 계획이다.

이 시설의 총건설비는 1,500~2,000 억엔 정도를 예상한다. 운송 수단으로는 전국의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低레벨 방사성 폐기물을 배로 이 시설에 운반하는 형식이 예정되고 있으며, 해안에 가까운 섬이 부지

후보지로 고려되고 있다.

구체적인 입지에 대해서는, 현재 원자력 환경 정비센터가 중심이 되어 준비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으며, 내년 여름경에는 결정될 예정이다.

이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전력회사가 공동 회사를 만들어 실시하는 형태나, 원자력 환경정비센터가 위탁을 받아서 행하는 형태가 생각되고 있다.

世界各國의 原子力發電 比重

원자력발전 시설의 규모가 큰 나라 순으로는 ① 미국, ② 프랑스, ③ 일본, ④ 소련, ⑤ 서독, ⑥ 영국, ⑦ 스웨덴, ⑧ 캐나다..... 이나, 원자력발전량의 쉐어(全電力供給에 占하는 原子力發電의 비율)가 큰 나라 순으로는 1위가 스위스의 28.4%, 2위가 스웨덴의 27.1%이다. 이들 두 나라는 과거에 원자력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으나 이는 원자력이 국민생활속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의 요인이었음을 알수 있을 것이다.

스웨덴에서는 1980년 3월의 국민투표에서 12基까지의 원자력발전소 개발이 인정되었으며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1985년의 원자력발전 쉐어는 45%가 될 전망이다.

3위는 프랑스인데, 금년 5월에 미테랑 사회당 정권이 탄생하였으나 원자력개발은 당분간 착실하게 진행될 전망이다. 금년 5, 6, 7월의 월간 실적으로의 원자력발전 쉐어는 40%선에 도달하고 있다.

그밖에, 일본이 22.8%로서 6위, 미국은 11.3%로서 10위, 소련은 4.7%로서 18위, 또, 한국, 불가리아, 자유중국, 동독등이 눈부신 추세로 원자력개발을 진행시키고 있다.

IAEA 예측으로는, 세계전체의 원자력발전 쉐어는 1980년에 8%였던것이 85년에는 17%로 倍增할 전망이다.

